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2. 17(월)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도지사, 코로나19 방역대응 현장 꼼꼼히 챙겨...**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동국대경주병원 방문 선별진료소 근무자 격려, 최일선 의료기관 방역대응 당부	보건정책과	
② **경북도, 친환경 안전먹거리 생산·유통에 650억원 투자**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확대 및 농가 소득안정 기여에 주력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487억원, 친환경 직불금 등 32억원 등	친환경농업과	
③ **경북소방본부 유튜브 '119안방', 수험생들로부터 폭발적 관심.. 인기 비결은?**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채용 길잡이 영상제작.. 새로운 시도와 변화로 이목 집중	소방본부	
④ **경북도, 도심 복개하천 등 13곳,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포항시 학산천, 안동시 안기천 등 9개 시군, 13개 하천 선정 도심 물길 복원으로 수질개선, 생태공간 확보 등 효과	환경안전과	
⑤ **경북도,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본격 추진!** 금성산, 제오리공룡발자국 등 의성군 전역이 지질학적 가치 높아 자체현장평가회 개최, 외부 전문가 인증가능성 크게 평가	환경정책과	
⑥ **영천시·의성군, 2019년도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최우수** 경북도, 2019년도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시군 시상 공정과 청렴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만들어 나가	감사관	
⑦ **경북도, 태풍 미탁 지방하천 피해복구 추진 총력!** 지방하천 수해복구 TF팀 구성, 수해복구비 1,945억 신속집행 노후교량 72개소 개체, 주민 숙원 해소	하천과	
⑧ **경북을 더 안전하게 삶을 더 행복하게!!** 2020년 경북소방 슬로건 확정..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의미 담아	소방본부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화공 굿모닝 특강' 참석 - 이철우 도지사, '확대 간부회의' 주재 - 이철우 도지사, '아이쿱 영남권 자연드림파크 투자협약' 체결	대변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7(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성자	과 장	김 영 길	
			팀 장	김남주	주무관	전은진
		연락처	054-880-3783		

이철우 도지사, 코로나19 방역대응 현장 꼼꼼히 챙겨…

-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동국대경주병원 방문 -
- 선별진료소 근무자 격려, 최일선 의료기관 방역대응 당부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국가지정 음압병상인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방문했다.

이 지사는 선별진료 상황과 음압격리시설 운영 등 현장을 꼼꼼히 챙기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 지사의 이날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인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6일 포항의료원 음압병상 현장방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 지사는 “어려운 현장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며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하다” 며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는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방역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의 대응을 철저히 해 달라” 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철통같은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지속적으로 도내 환자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도내 2개 의료기관에 7실의 완벽한 음압병상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중 3실의 음압병상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4실의 음압병상은 포항의료원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 도내 공공의료기관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보건소 등에 감염병 선별진료소 46개소를 운영해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분류하고 있다.

또 환자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12개 의료기관에 37실의 음압·격리병상을 가동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코로나19 지역내 확산방지를 위해 예비비 등 56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열감지 화상 카메라 85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136개소에 설치했다.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개인보호복 등) 구입 지원, 도내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 실시 등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의사환자 감시와 방역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6일 최일선 방역현장인 포항의료원을 방문해 방역체계를 점검했고, 10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방문해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또 12일에는 중국유학생에 대한 대책과 운수업계와 교통관련 현장점검을 하는 등 2월에 예정된 대부분의 대내외 일정을 최소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광폭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7(월)】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친환경농업과		
		작 성 자	과 장	조 환 철	
			팀 장	김진윤	주무관 권수정
		연 락 처	054-880-3361		

경북도, 친환경 안전먹거리 생산·유통에 650억원 투자

-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확대 및 농가 소득안정 기여에 주력 -

-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487억원, 친환경 직불금 등 32억원 등 -

경상북도가 올해 총 6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도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보다 20%, 106억 원 증가한 규모다.

친환경농업은 FTA 등 시장개방화에 따른 수입농산물에 대응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농촌경제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경북의 친환경 인증면적은 3천852ha, 농가수 4천220호이다. 전국대비 인증점유율이

그리 높지 않지만 출하량은 5만9천946톤으로 전국 출하량(45만886톤)의 13.3%,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정체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의 높은 가격을 소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금년도 경북도의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확대와 더불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안정, 유통활성화, 소비촉진 강화에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우선 생산기반 확충분야로 토양의 환경보전과 지력증진에 주력한다.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공급에 487억 원, 친환경농업의 생산비 절감과 녹비작물종자, 유기농업자재 등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28억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13억 원을 투입한다.

농업 환경보전 및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에 5억 원을 들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유기지속직불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로 22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부담경감과 경영안정에 기여한다.

친환경농산물 가격인하를 위해서 직불제도에 10억 원을 들여 농가의 일반농업 대비 친환경농업 생산비 격차를 보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및 소비기반 구축차원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소비자초청 행사, 친환경농산물 홍보·판매행사 등에 농가 수요를 최대한 반영, 2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7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안동, 예천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챙기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로 농가 소득도 높이는

일석이조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매년 '경북친환경농산물 품평회(10월경)' 를 개최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9월경에 '친환경농산물 특판전' 을 열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뢰도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조환철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어 친환경 안전 먹거리 생산·유통에 적극 노력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7(월)】	담당부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작성자	과 장	한 상 일	
			팀 장	유문선	주무관 김민정
		연 락 처	054-880-6155		

경북소방본부 유튜브 '119안방', 수험생들로부터 폭발적 관심.. 인기 비결은?

-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채용 길잡이 영상제작... 새로운 시도와 변화로 이목 집중 -

경상북도가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채용 길잡이 홍보영상이 경북소방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 '119안방'에서 조회 수 9천 회를 넘기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월 7일 전국 최초로 '119안방'을 통해 공개된 소방공무원 채용 길잡이 홍보영상은 일일 평균 1천명 이상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며 수험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꾸준히 조회 수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채용 길잡이 홍보영상은 경북소방본부 인사채용팀과 119안방팀이 함께 의기투합해 자체 제작했다. 2020년도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공고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 했던 핵심 질문들만 모아 56분 정도의 분량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경북소방본부 따르면 채용 길잡이 홍보영상이 공개된 이후 수험생들로부터 전화문의가 몰리던 현상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드는 등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119안방' 채널을 통한 실시간 댓글로 직접 소통하면서 수험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 등 다양한 채용분야의 영상을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유튜브가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유력 SNS 매체로서 영향력이 커진 만큼 경북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며 "수험생은 물론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궁금했던 내용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제작하여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소방본부 ‘119안방’은 ‘119안전방송’의 약칭으로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용공고, 체력시험, 면접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수험생들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상식 콘텐츠도 함께 제작하여 업로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7(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안전과		
		작성자	과 장	이 희 석	
			담 당	류재욱 주무관	신무경
		연 락 처	054-880-3542		

경북도, 도심 복개하천 등 13곳,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 포항시 학산천, 안동시 안기천 등 9개 시군, 13개 하천 선정 -
- 도심 물길 복원으로 수질개선, 생태공간 확보 등 효과 -

과거 도시개발로 복개되었거나 건천화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도심 하천들이 열린 물길로 되살아나 생태·문화가 어우러진 생활공간으로 재창조된다.

경북도는 올해 9개 시군, 13개 하천을 선정하고 약 200억원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생태계 훼손, 건천화, 수질악화 등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도심 건천·복개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 도심 속의 생태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19년 10개소, 올해 13개소에 사업을 추진한다.

※ 2019년 환경부 주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콘테스트」에서도 울진군(왕피천) 최우수, 문경시(모전천)가 장려로 선정된 바 있음

도는 총 2,1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포항시 학산천, 구무천, 안동시 안기천, 영주시 금계천, 상주시 북천, 병성천, 문경시 보림천, 금천, 고령군 소가천, 성주군 성삼천, 대흥천, 예천군 금곡천, 울진군 광천 등 13개의 하천(46.4㎞)을 생태하천으로 2023년까지 복원한다.

사업은 도로, 상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복개 시설물의 철거 및 물길 복원,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먼저 하천의 과거·현재·미래, 하천주변의 생활·문화·역사를 고려한 복원목표를 설정해 하천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복개 시설물을 철거해 과거의 물길을 복원한다.

퇴적토 준설, 여과 시설의 설치,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수질을 개선한다. 또 하천수량을 증가시키고 수생식물 식재, 생물서식처 복원, 여울·소의 조성, 생물 이동통로 조성으로 생태계를 회복시킨다. 아울러 생태 탐방로 등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확보, 역사·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등 하천을 도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복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심 복개하천 등을 되살리면 수질 및 생태계 복원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 생태공간 제공, 주변지역 교통량 감소로 인한 대기 및 소음피해 저감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황(13개소)

하천명		총 사업비	'20년 사업비(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소 계	균특	도비	시군비	
9개 시군 13개 하천		212,319	20,900	0	13,585	7,315	
포항	학산천 (~'22)	36,300	5,000		3,250	1,750	퇴적물 준설, 생태호안, 자연형여울
포항	구무천 (~'21)	20,000	1,800		1,170	630	퇴적물 준설, 생태호안, 자연형여울, 가동보
안동	안기복계천 (~'22)	44,693	1,200		780	420	복개구조물 철거, 물길복원, 생태서식처 조성
영주	금계천 (~'21)	11,300	1,200		780	420	자연형 호안, 여울형 어도, 식생정화수로
상주	북천 (~'20)	9,880	1,000		650	350	수질정화습지, 어도, 생태체험학습장
상주	병성천 (~'22)	15,000	1,000		650	350	수질정화습지,보개량,어류서식처,샛강,탐방로
문경	보림천 (~'23)	15,454	1,000		650	350	생태호안, 물고기길 복원,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문경	금 천 (~'20)	17,000	2,000		1,300	700	생태습지, 어류이동로, ,보개량, 탐방로
고령	소가천 (~'21)	8,692	1,000		650	350	생물수질정화습지, 서식처 조성, 친수환경개선
성주	성삼천 (~'22)	4,200	200		130	70	자연형 여울, 복개구조물 철거, 생태공간 조성
성주	대흥천 (~'20)	5,000	2,100		1,365	735	자연형호안,여울,생태공간, 생태수로
예천	금곡천 (~'22)	20,000	2,000		1,300	700	보·낙차공 개량, 어도개량 징검여울, 탐방로
울진	광천 (~'21)	4,800	1,400		910	490	어도 개량, 생태여울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7(월)】	담당부서	환경산림자원국 환경정책과		
		작성자	과 장	김 종 헌	
			팀 장	이응원	주무관 김정훈
		연 락 처	054-880-3525		

경북도,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 본격 추진!

- 금성산, 제오리공룡발자국 등 의성군 전역이 지질학적 가치 높아 -
- 자체현장평가회(2.14.~15.) 개최, 외부 전문가 인증가능성 크게 평가 -

경상북도는 지난 1월 의성군이 제출한 신규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인증 가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인증 신청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환경부로 정식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사전현장평가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양일간 의성군 일원에서 외부 지질전문가 6명, 관계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체현장평가회에 초빙한 지질전문가들은 국내 지질공원을 운영하는 광역시·도 소속의 지질공원 담당자들이다. 이들은 각 지역별 지질공원 인증추진과 관리·운영의 실무자로 가장 많은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현장평가 결과, 모든 참석자가 의성군이 보유한 지질유산의 잠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으며,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역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우수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지질공원센터역할을 수행할 산운생태관, 조문국박물관 상상놀이터 등

다만, 학술적 가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는 주요 지질명소에 대한 국내외 다수의 연구발표 논문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의성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는 의성군 행정구역 전체를 공원구역으로 총 1,175㎢ 면적을 가진다. 금성산, 제오리 공룡발자국, 구산동

응회암* 등 7개의 지질명소와 금성산 고분군, 낙단보 등 지질분야 이외에 역사·문화·생태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비지질명소 5개를 비롯해 총 12개의 명소를 가진다.

*뜨거운 화산분출물(화산재 등)이 쌓여 만들어진 암석

도는 이날 자체현장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보완하고, 3월 중에 경상북도 지질공원운영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의 자문·심의를 거쳐 환경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가지질공원사무국(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필요시)를 거쳐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지질공원 인증후보지로 지정된다. 이때 인증을 위한 조건을 부여받는데, 이를 2년의 기한 내에 충족해 환경부의 현장실사와 지질공원위원회 심의를 다시 한 번 통과해야 최종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다.

의성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과 함께 지질공원해설사 운영과 지질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상품 판매증대를 유도해 주민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의성이 새로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지질유산을 보다 잘 보전하고, 이를 친환경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의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의성 국가지질공원 인증후보지 지정추진

□ 추진 개요

○ 공 원 명 : 의성 지질공원

○ 공원면적 : 1,175.1㎢ (의성군 행정구역 전체)

○ 지질명소 : 금성산, 빙계계곡, 제오리공룡발자국 등 7개소

* 비지질명소 : 금성산고분군, 왜가리생태마을, 낙단보 등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 추진현황

○ '17.12.~'18.12. : 신규 발굴 타당성조사용역(道, 75백만원, 안동대)

○ '18.07.~'18.08. : 전담조직(TF) 구성 및 지질전문가 채용(의성군)

○ '19.04.~'20.02. :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용역(군, 140백만원, 경북대)

○ **'20. 1월 : 국가지질공원 인증후보지 신청서 제출(군→道)**

□ 향후일정

○ '20.01.~'20.02. : 신청서 검토·보완, 전문가 자문(자체예비실사)

○ '20. 3월초 : 경상북도 지질운영위원회 심의

○ '20. 3월중 : 국가지질공원 인증후보지 신청서 제출(道→환경부)

* 서류심사→현장평가→(환경부)지질공원위원회 심의로 지정('20년 하)

【 국가지질공원 지정 제도 】

※ 국가지질공원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

*** 도내 국가지질공원 현황(3개소, 전국 12개소)**

– 울릉도·독도('12), 청송('14), 경북 동해안('17) ※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17.5.5.)

▸ **인증필수조건 :** 지질명소 5개소 이상, 해설사 양성 및 운영, 홈페이지 구축, 탐방로 1km 이상, 지질공원 센터(전시) 설치, 안내센터 2개소 이상, 지역협력사업 추진 등

▸ **인증절차**

준비·기획 (시군) ▷ **추진의향제출** (시군→도) ※도 위원회 심의추진 ▷ **후보지 인증 신청** (도→환경부) ▷ **서면, 현장평가** (환경부) ※ 지질공원사무국 ▷ **후보지 선정** (지질공원위원회) ※ 인증조건 부여

▷ **인증신청** (도→환경부) ※ 인증조건 충족 후 ▷ **현장실사** (위원회, 전문위원) ▷ **최종인증심의** (지질공원위원회) ▷ **관리·운영** (도, 시군) ▷ **인증유지** (매4년마다 점검)

참고	지질공원 인증(운영) 효과

□ 특 징

○ **자연에 대한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제도와 달리**

- 인간과 자연의 공존 추구, 법적규제가 아닌 교육을 통한 자발적 보전을 추구하며, 보전을 전제로 한 활용 장려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 보전과 활용의 선순환

- 최근 국내외에서 환경정책으로 각광, 친주민적 제도

  → 지역주민의 환경보전활동 기회제공, 일자리 및 소득 창출

□ 인증효과

○ **지역브랜드 가치창출 및 제고**

- (환경부)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인증

○ **이에 따른 관광객 증대효과 多**

- 경주 양남주상절리 일대는 과거 관광객이 거의 없던 어촌

  → 현재 연간 300만명(추정)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탈바꿈

- 또한, 청송은 '17년 5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이후,

  → '17년 10월 관광객 전년대비 38%증가(KT빅데이터)

  → '17년 5월 카드 이용액 전년대비 177%증가(신한카드 빅데이터)

○ 지질공원과 연계한 지오푸드개발(ex,양남주상절리빵) 등 **지역특산품 판매에 지질공원 브랜드 활용**으로 판매증대효과

○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지질공원해설사(지역주민대상선발) 운영으로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

- 현재 3개 공원 6개 시·군 74명 활동 중, 점진적 증대추진
- 자원봉사형태(수당지급), 지역주민의 자연유산에 대한 자발적 보전의식 함양, 환경보전제도 참여기회 제공

※ 공원당 연간 약 1억원의 관리/운영비 국비 지원

의성 지질공원 후보지 자체현장평가회 개최

의성 지질공원 후보지 신청과 관련하여 지질공원 신청주체인 광역시·도 지질전문가들과 추진사례 공유 및 추진전략 도모

행사 개요

○ 기　　간 : 2020. 2. 14.(금) ~ 2. 15.(토) (1박2일)

○ 장　　소 : 의성 지질공원 일원

○ 참석대상 : 광역시·도 지질전문가 6인, 관계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의성 지질공원 추진현황 보고회 및 지질명소 현장답사

시간 계획

구 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일차 (2.14.)	~11:00		이동(대구→의성)	
	11:00~12:00	60′	**의성 국가지질공원 추진현황 보고회** - 보고자 : 경북대학교 장윤득 교수	영상회의실
	12:00~13:00	60′	중식	
	13:00~14:00	60′	**양지리 구산동응회암**	지질명소 *가음면 양지리 산43
	14:00~16:00	120′	**금성산**(산운생태공원 → 수정사)	지질명소
	16:00~17:00	60′	**조문국박물관**	비지질명소
	17:00~18:00	60′	**제오리 공룡발자국**	지질명소
	18:00~		석식 및 숙박	
2일차 (2.15.)	~10:00		조식 및 금성산고분군 탐방	
	10:00~12:00	120′	후보지 신청서 관련 종합토론	
	12:00~		해산 및 이동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7(월)】	담당부서	감사관		
		작 성 자	감사관	이 창 재	
			팀 장	김승동	주무관	김설희
		연 락 처	054-880-4354		

영천시·의성군, 2019년도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최우수

- 경북도, 2019년도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시군 시상 -
- 공정과 청렴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경상북도 만들어 나가 -

경상북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9년 시군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 우수시군을 시상하고 한 해 동안 부패방지와 공정한 감사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영천시, 의성군이 선정돼 포상금 각 200만원을 받았다. 우수기관으로는 김천시, 울진군이 선정돼 포상금 각 100만원을 받았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이뤄진 이번평가에서 자체감사활동 분야평가로 감사활동 시행, 처분을 통한 행정 개선과 수범사례 발굴로 감사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노렸다. ‘19년 신규 평가 지표로 추가된 부패방지 시책추진 분야평가로는 기관 특성에 맞는 반부패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청렴도 향상을 기대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영천시는 자체 감사활동결과 보조금 편취 및 횡령 의심 공무원에 대한 자체 적발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근절에 노력했고, 특히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나 상승하는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성군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간부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창재 감사관은 “시군과 도의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은 공직 내·외부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며 “앞으로도 공정한

감사운영과 부정부패 없는 공직자의 모습으로 도민들께 신뢰 받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도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활동평가를 매년실시하고 있으며 ‘18년 포항시, 영덕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7(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하천과		
		작성자	과 장	최 정 우	
			팀 장	김명종	주무관 김지찬
		연 락 처	054-880-4088		

경북도, 태풍 미탁 지방하천 피해복구 추진 총력!

- 지방하천 수해복구 TF팀 구성, 수해복구비 1,945억 신속집행 -
- 노후교량 72개소 개체, 주민 숙원 해소 -

경상북도가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지방하천 피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피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재해복구사업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제18호 태풍 미탁(10월 1일 ~ 10월 3일)은 울진 554.3㎜, 영덕 380㎜(일 최대강우량)의 기록적인 폭우를 내렸으며, 10개 시·군 89개 지방하천 137개소에 196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도는 제방유실, 구조물 파손 등 개선복구가 시급한 13개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보강 및 교량 개체 등 세부 사업물량을 확정했다. 현황을 보면 피해가 가장 심한 울진군은 1,240억 원을 들여 금천, 매화천 등 6개 하천에 교량 56개소, 제방 및 호안 22.8㎞를 복구한다. 영덕군은 629억 원을 투입해 송천, 유금천 등 5개 하천에 교량 16개소, 제방 및 호안 25㎞에 대한 복구사업을 추진한다. 경주와 성주는 각 1개소에 74억 원으로 하천 복구사업을 추진한다.

<재해복구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하천명	하천 연장	피해액	복구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계	13개 지방하천		10,020		194,467	
울진	6개소 (금천,매화천,방율천, 남대천,박금천,온정천)	76.46	3,389	제방 및 호안 L=22.8㎞ 교량 56개소	124,062	
영덕	5개소 (송천,유금천,울령천, 조항천,동로천)	54.25	5,250	제방 및 호안 L=25.0㎞ 교량 16개소	62,965	
경주 성주	남천, 이천	6.63	1,381	보축 및 축제 L=0.6㎞	7,440	타시군 피해액 9,624

피해가 심각한 개선복구 대상 13개 지방하천에 하천범람을 유발하는 노후 교량 72개소를 개체하여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1,945억 원을 영덕, 울진 등 피해지역에 집중 투입해 재해 조기복구 및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 사전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에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및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복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사업비 조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0. 2. 17(월)】	담당부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작성자	과 장	이 진 우	
			팀 장	안영호	주무관 윤경재
		연 락 처	054-880-6233		

경북을 더 안전하게 삶을 더 행복하게!!

- 2020년 경북소방 슬로건 확정...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의미 담아 -

경상북는 2020년 경북소방 슬로건을 '경북을 더 안전하게 삶을 더 행복하게'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슬로건은 경상북도와 경북소방의 핵심가치인 '안전'과 '행복'을 기반으로 도민의 곁으로 한발 더 나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소방본부, 소방학교, 19개 소방서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슬로건 공모를 진행해, 총 453건을 제안 받았다. 1차·2차 심사위원회에서 열띤 토의와 심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슬로건을 확정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슬로건과 함께 ▲효율적 재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을 위한 도민 안전 행복 서비스 추진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건강하고 긍정적인 굳센 조직문화 조성을 2020년 4대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실현을 위해 모든 소방정책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경북소방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도민 소방안전복지서비스의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화공 굿모닝 특강’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 18일(화) 오전 7시 20분 도청 다목적홀에서 김윤명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올바른 전자파 상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공 굿모닝 특강’에 참석한다.

□ **이철우 도지사, ‘확대 간부회의’ 주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 18일(화) 오전 9시 도청 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 **이철우 도지사, ‘아이쿱 영남권 자연드림파크 투자협약’ 체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 18일(화) 오후 3시 도청 회의실에서 청도군, 아이쿱소비자생협연합회와 친환경 유기농식품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영남권 자연드림파크 투자협약’을 체결한다.